

다발성 치은 퇴축부에 대한 치근 피개

박경아*, 정철웅, 정찬길

광주 미르치과병원

연구배경

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치은 퇴축은 치근 우식증, 지각 과민증 등을 초래하고,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심미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. 노출된 치근 피개 방법으로는 coronally positioned flap, free gingival graft,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 및 guided tissue regeneration 등이 있는데, 그 중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가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된다. 이 술식은 이식편의 양면에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고, 공여부의 창면이 작아 환자의 동통과 불쾌감이 적고, 주위 조직과의 색조 차이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. 1985년 Langer & Langer technique이 처음 보고된 이래 여러 술식들이 제시되어 왔다. 다발성 치은 퇴축 치료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1994년 Bruno가 제시한 Modified Langer & Langer technique(Bruno technique)이 있다. 이 술식은 vertical incision을 시행하지 않으며, 상부 판막의 Coronal positioning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. 이로 인해 충분한 혈액공급, 술 후 불편감 감소, vertical incision에 의한 scar형성이 되지 않는 등의 이점이 있다. 이에 본 증례에서는 상악 전치부의 다발성 치은 퇴축부에 대해 Bruno technique을 이용한 치근 피개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.

연구재료 및 방법

지각 과민 및 심미적인 이유로 상악 전치부의 다발성 치은 퇴축부에 대한 처치를 원하는 2명의 환자(증례 1, 2)에 대해 Bruno technique으로의 결합조직 이식을 시행하고 술 후(6개월, 6주) 치근 피개 정도를 임상적으로 평가하였다.

연구 결과

증례1(6개월)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효과적인 치근 피개를 달성했다.

증례2(6주)에서는 한 개 치아부위에 대해 치근 피개가 성공적이지 못했다. 이는 이식편의 채취와 고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생각된다.

결론

상악 전치부의 다발성 치은퇴축에 대한 Bruno technique의 적용으로 어느 정도 환자의 심미성을 개선하였으며, 치은 두께의 증가 및 각화치은의 양도 증가시켰다. 보다 세심한 수술이 되어 진다면 예견성이 좋은 수술방법이라 사료된다.